美 초등학교 총기 난사 참사…어린이 19명 등 21명 사망

18살 고교생 권총·소총 무장한 채 무차별 공격…현장서 사살돼
18살 생일 전후 총기구입…사회와 단절된 '외로운 늑대형' 범죄
여름 방학 앞둔 아이들 희생…샌디훅 이후 10년 만에 최악 참사

2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9명의 어린이가 숨지는 참사가 빚어졌다.

라틴계 주민이 모여 사는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18살 고등학생 샐버도어 라모스는 이날 현지 롭 초등학교에서 어린 학생들과 교사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라모스는 현장에서 진압 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18살 고교생 총기 난사에 방학 앞둔 아이들 희생=텍사스주 공안부는 CNN 방송에 이번 사건으로 현재까지 어린이 19명과 어른 2명 등 최소 21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롤런드 구티에레즈 텍사스주 상원의원은 이날 경찰로부터 어린이 18명과 성인 3명이 사망했으며, 부상자 3명이 중태라고 보고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현재 총 사상자수는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인명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학생 14명, 교사 1명이 숨졌다고 발표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상자가 더 늘었다.

애벗 주지사는 "총격범이 끔찍하게도 학생과 교사를 총으로 쐈다"고 밝혔다.

총격범 라모스도 현장에서 사망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관은 AP 통신에 사건 당시 인근 국경경비대 요원들이 먼저 학교로 출동해 대응했고 바리케이드 뒤에 몸을 숨긴 라모스를 사살했다고 전했다.

◇샌디 훅 이후 10년 만에 초등학교서 최악 총기 참사=현지 언론들은 2012년 12월 코네티컷주 샌디훅 초등학교 총격 사건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참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당시 사건으로 어린이 20명, 어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AP 통신은 "10년 전 샌디 훅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이후 미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가장 치명적인 사건"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 24일(현지시간)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기(弔旗)가 게양돼있다. /연합뉴스

이어 "텍사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희생된 학교 총기 사건이고, 10명이 숨졌던 휴스턴의 샌타페이 고등학교 총격 이후 4년 만에 참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총격 사건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조만간 열린 예정인 전미총기협회(NRA) 연례총회를 앞두고 발생해 총기 옹호론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방탄복 입고 소총으로 무장한 채 교실로 쳐들어가=CNN 방송 등에 따르면 라모스는 이날 학교 바깥과 교실에서 총을 쐈다.

텍사스주 공안부에 따르면 그는 먼저 한 할머니에게 총을 쏜 뒤 직접 차를 몰고 달리다가 초등학교 인근 배수로에 빠졌다.

이후 차에서 내린 그는 총을 들고 학교로 향했다. 이어 학교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교실로 쳐들어가 총을 난사했다.

공안부는 라모스가 방탄복에 백팩을 맨 차림이었으며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라모스가 어머니, 할머니와 함께 살았으며 학교에서는 심한 괴롭힘을 당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친구인 샌토스 발데스 주니어는 워싱턴포스트(WP)에 라모스가 최근 이상행동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라모스가 자신의 얼굴을 자해하고 장난감 BB총으로 사람들을 쐈으며 검은색 옷과 군화를 신고서 소셜미디어에 소총 사진을 올리기도 했다고 전했다.

당국에 따르면 라모스는 18살 생일 직후인 지난 5월 이번 범행에 사용한 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 일각에서는 사회와 단절된 '외로운 늑대' (단독으로 행동하는 테러리스트)형 범죄라는 추정도 나온다.

애벗 주지사는 범행 동기와 무기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멕시코로 분유 원정 쇼핑 나서는 미국인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티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24일(현지시간) 국경을 넘어 멕시코 티후아나의 한 매장에서 분유를 구입하고 있다. 분유 파동이 지속되자 일부 미국인들은 멕시코로 원정 쇼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푸틴 건강 이상설 속 크렘린궁 내부 '푸틴 후계자' 논의"

텔레그래프, 러 메두자 인용 보도
"정부 관리·기업인들 푸틴에 불만"

러시아가 건강 이상설이 돌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후계자를 정권 내부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러시아 독립 인터넷매체 메두자를 인용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크렘린궁 관계자들은 푸틴 대통령이 중병에 걸릴 경우에만 교체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누가 그를 대체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는 건 사실이라고 메두자에 전했다. 이 관계자들은 "당장 푸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게 아니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가 머지않은 시기에 나라를 통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정권 내부에) 있다"고 부연했다.

이런 기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 제재가 '파괴적인 수준'으로 나라를 옥죌 것이라는 러시아 내부의 우려를 반영한다고 텔레그래프는 분석했다.

실제로 정부 관리들과 기업인들 중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시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최대 온라인 은행 '틴코프' 설립자 올렉 틴코프는 메두자에 "대부분의 러시아 기업인들이 전쟁을 규탄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그걸 드러내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이 대러 경제 제재의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푸틴 대통령은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정부 관료의 증언도 소개됐다. /연합뉴스

미국 중간선거 앞둔 바이든 지지율 36%…또 역대 최저

민주당 내 지지율도 하락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번 주 36%까지 떨어지며 또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업체 입소스(IPSOS)가 23~24일 미국 전역에서 성인 1천5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지난주 42%에서 일주일 새 6%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8월부터 50% 이하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고전하고 있다.

응답자 중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59%로, 지지율과 큰 격차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기반인 민주당 내 지지율도 72%로 전주보다 4%P 낮아졌다. 공화당 내 지지율은 10%에 불과하다.

지지율 부진의 원인으로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꼽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연료 등 물자 가격이 상승했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붕괴한 글로벌 공급망도 아직 회복되지 않은 탓이다.

이를 두고 로이터는 민주당이 11월 8일 예정된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중 적어도 한 곳에서 과반 의석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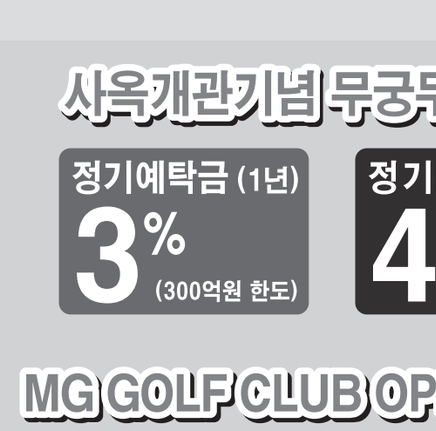
여론조사기관 갤럽도 별도 조사에서 중간선거 전 미국의 경제 상황이 극적으로 나아질 개연성은 적다며 민주당이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금남새마을금고 사옥 임대 및 특판 안내

1 반경 1km내 아파트 및 오피스텔 7000여 세대 상권유입 가능
2 아시아문화전당 인접, 예술의 거리 및 음식의 거리 방문 고객 확보
3 금고 회원 17,000여명 잠재고객 창출 및 홍보가능
4 커피전문점, 베이커리, 금은방, 편의점 입점 협의 中
5 사옥 5층 문화센터 상시운영 (골프클럽, 요가, 갤러리)가망고객 확보
6 사옥 맞은편 아파트 신축 공사中 유동고객 추가창출
7 지하철 2호선 개통시 접근성 양호, 유동인구 폭발 증가
8 입점업체 행사 (이벤트)회원홍보 적극지원

임대 안내

층	호 실	임대면적(㎡)	
1	101호	89.18㎡	(27평)
	102호	132.19㎡	(40평)
	103호	167.5㎡	(51평)
2	201호	87.82㎡	(27평)
	202호	91.02㎡	(28평)
	203호	140.98㎡	(43평)
	204호	271.42㎡	(82평)
3	301호	치과 입점	
	302호	238.34㎡	(72평)
	303호	275.01㎡	(83평)
4	401호	340.62㎡	(103평)
	402호	238.34㎡	(72평)
	403호	275.01㎡	(83평)
5	501호	MG 문화센터 (갤러리 대관 환영)	
	502호	MG 골프클럽 (회원 大 모집)	



사옥개관기념 무궁무진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 (300억원 한도)

정기적금 (1년) 4% (월불입한도 100만원)

MG GOLF CLUB OPEN 이벤트

※기간: 5월9일~6월15일 (단위:원)

구 분	이용기간	이 용 료
정기회원	1개월	200,000 ▶▶ 190,000
	3개월	600,000 ▶▶ 510,000
	6개월	1,200,000 ▶▶ 960,000
	12개월	2,400,000 ▶▶ 1,680,000

※락카비 - 월 10,000원 (6개월 이상 등록자 무료)

MG금남새마을금고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207-7(대인동) ※임대문의: 영업지원팀 062-223-8007